

사립대학의 새로운 재정 지원책, 산학협력단

◆ 사립대학 수익 구조의 변화

- 사립대학 교비회계 운영계산서 자료(2018~2024회계연도)를 분석해보면, 사립대학의 수익총계는 매년 상승하는 추세로, 연평균 상승률(7개년)은 1.5% 수준임
- '18회계연도 이후 사립대학 수*가 감소세임에도 절대적인 수익총계가 증가하였으며, 특히 수도권 지역 사립대학의 수익총계 연평균 상승률은 1.9%로 비수도권 지역 대학(1.0%)에 비해 상승폭이 큼
* 한국사학진흥재단 집계교(결산자료 제출교)
- 한편, 사립대학의 수익총계는 증가세인 반면에 등록금수입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
- 2024회계연도 기준 등록금수입은 총 127,766억원으로 연평균 상승률이 $\Delta 0.6\%$ 이며, 이 중 수도권 지역 대학은 0.3%, 비수도권 지역 대학은 $\Delta 1.8\%$ 의 연평균 상승률이 나타나 비수도권 지역 대학이 수도권 지역 대학에 비해 등록금수입의 하락세가 가파름을 알 수 있음
- 등록금수입은 사립대학의 수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수입원이므로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대학 재정에 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

사립대학 운영수익 현황(2018~2024회계)

(단위: 억 원, %)

구분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 상승률	
전국	등록금수입	132,135 (62.3%)	131,978 (61.8%)	128,849 (62.3%)	126,336 (60.5%)	124,988 (58.4%)	126,446 (56.4%)	127,766 (55.1%)	$\Delta 0.6\%$
	전입금수입	13,129 (6.2%)	12,669 (5.9%)	12,980 (6.3%)	12,818 (6.1%)	13,512 (6.3%)	14,259 (6.4%)	14,494 (6.3%)	1.7%
	기부금수입	4,620 (2.2%)	4,794 (2.2%)	4,678 (2.3%)	5,069 (2.4%)	6,044 (2.8%)	6,880 (3.1%)	6,361 (2.7%)	5.5%
	국고보조금수입	39,965 (18.8%)	40,832 (19.1%)	42,914 (20.7%)	43,153 (20.7%)	46,989 (22.0%)	50,628 (22.6%)	54,923 (23.7%)	5.4%
	산학협력단 전입금	2,330 (1.1%)	1,887 (0.9%)	1,836 (0.9%)	1,888 (0.9%)	2,067 (1.0%)	1,919 (0.9%)	1,900 (0.8%)	$\Delta 3.3\%$
	그 외 기타	20,004 (9.4%)	21,447 (10.0%)	15,675 (7.6%)	19,434 (9.3%)	20,408 (9.5%)	24,030 (10.7%)	26,421 (11.4%)	4.7%
	수익총계	212,183 (100.0%)	213,607 (100.0%)	206,931 (100.0%)	208,698 (100.0%)	214,008 (100.0%)	224,161 (100.0%)	231,864 (100.0%)	1.5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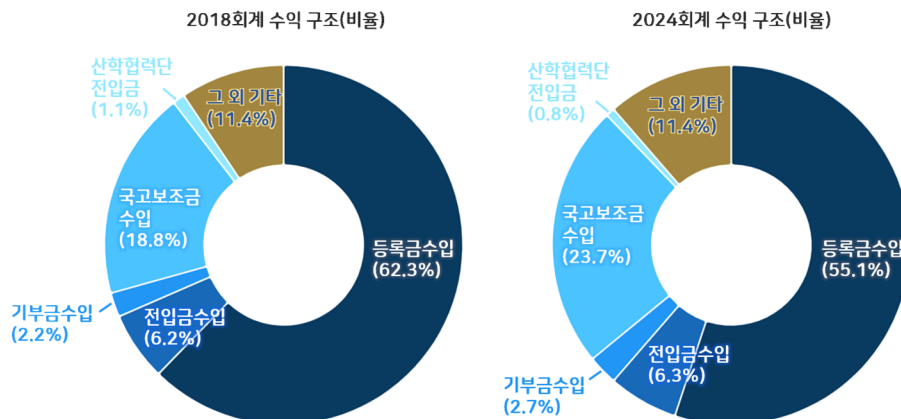
구분	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 상승률
수도권	등록금수입	74,405 (63.9%)	74,487 (63.4%)	73,266 (63.6%)	72,940 (63.3%)	73,004 (60.9%)	74,701 (59.3%)	75,882 (58.4%)	0.3%
	전입금수입	7,750 (6.7%)	7,181 (6.1%)	7,539 (6.5%)	7,185 (6.2%)	7,683 (6.4%)	8,279 (6.6%)	8,277 (6.4%)	1.1%
	기부금수입	3,149 (2.7%)	3,257 (2.8%)	3,251 (2.8%)	3,468 (3.0%)	4,230 (3.5%)	4,646 (3.7%)	4,469 (3.4%)	6.0%
	국고보조금수입	17,186 (14.8%)	18,102 (15.4%)	19,256 (16.7%)	19,182 (16.6%)	20,647 (17.2%)	21,750 (17.3%)	24,013 (18.5%)	5.7%
	산학협력단 전입금	1,873 (1.6%)	1,554 (1.3%)	1,457 (1.3%)	1,585 (1.4%)	1,637 (1.4%)	1,496 (1.2%)	1,460 (1.1%)	△4.1%
	그 외 기타	12,030 (10.3%)	12,976 (11.0%)	10,435 (9.1%)	10,864 (9.4%)	12,674 (10.6%)	15,177 (12.0%)	15,914 (12.2%)	4.8%
	수익총계	116,394 (100.0%)	117,558 (100.0%)	115,204 (100.0%)	115,224 (100.0%)	119,876 (100.0%)	126,050 (100.0%)	130,015 (100.0%)	1.9%
비수도권	등록금수입	57,730 (60.3%)	57,491 (59.9%)	55,583 (60.6%)	53,396 (57.1%)	51,985 (55.2%)	51,744 (52.7%)	51,884 (50.9%)	△1.8%
	전입금수입	5,379 (5.6%)	5,488 (5.7%)	5,441 (5.9%)	5,633 (6.0%)	5,828 (6.2%)	5,980 (6.1%)	6,217 (6.1%)	2.4%
	기부금수입	1,471 (1.5%)	1,536 (1.6%)	1,427 (1.6%)	1,601 (1.7%)	1,813 (1.9%)	2,233 (2.3%)	1,892 (1.9%)	4.3%
	국고보조금수입	22,779 (23.8%)	22,730 (23.7%)	23,658 (25.8%)	23,971 (25.6%)	26,342 (28.0%)	28,878 (29.4%)	30,909 (30.3%)	5.2%
	산학협력단 전입금	457 (0.5%)	333 (0.3%)	379 (0.4%)	304 (0.3%)	430 (0.5%)	423 (0.4%)	440 (0.4%)	△0.6%
	그 외 기타	7,974 (8.3%)	8,471 (8.8%)	5,240 (5.7%)	8,570 (9.2%)	7,734 (8.2%)	8,853 (9.0%)	10,507 (10.3%)	4.7%
	수익총계	95,790 (100.0%)	96,049 (100.0%)	91,727 (100.0%)	93,475 (100.0%)	94,132 (100.0%)	98,111 (100.0%)	101,850 (100.0%)	1.0%

※ 교비회계 운영계산서 기준, 원격대학 제외

→ 이러한 상황에서 기부금 및 국고보조금수입 등이 등록금수입의 감소를 보전하고 수익총계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며 기부금 및 국고보조금수입의 연평균 상승률은 5.4% 수준임

→ 사립대학의 수익총계가 증가하여 사립대학 재정이 나아지고 있다 판단할 수 있으나 수익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학 내부 재원인 등록금수입의 비중이 줄고 외부 재원인 기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, 내부 재원의 역할을 하는 산학협력단 전입금 또한 금액과 비중이 줄고 있음

- 이는 사립대학의 수익총계가 증가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립대학의 자생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외부 재원에 대한 의존을 늘리기보다 내부적인 수익 창출이 더 필요함을 시사함



◆ 대학재정에서 산학협력단의 역할

▷ 산학협력단의 중요성 증대

- 최근 정부 정책은 지역 산업과 대학의 동반성장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, 이 가운데 산학협력단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
- 세부적으로 대형 국책사업인 RISE사업(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)과 글로컬 대학, LINC 3.0 등의 사업이 산학협력단의 연구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, 그 영향으로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와 범위가 크게 확장되고 운영수익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

산학협력단 운영수익 현황(2018~2024회계)

(단위: 억 원, %)

구분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 상승률	
전국	산학협력수익	9,649 (20.1%)	10,004 (20.5%)	10,303 (19.5%)	11,423 (18.9%)	12,220 (18.7%)	12,622 (17.3%)	12,271 (17.1%)	4.1%
	지원금수익	31,744 (66.2%)	32,575 (66.8%)	35,592 (67.4%)	41,089 (68.0%)	44,434 (68.0%)	50,724 (69.7%)	50,505 (70.4%)	8.0%
	간접비수익	5,559 (11.6%)	5,317 (10.9%)	6,043 (11.4%)	6,785 (11.2%)	7,510 (11.5%)	7,913 (10.9%)	7,376 (10.3%)	4.8%
	전입및기부금 수익	94 (0.2%)	97 (0.2%)	88 (0.2%)	93 (0.2%)	102 (0.2%)	154 (0.2%)	120 (0.2%)	4.1%
	운영외수익	907 (1.9%)	746 (1.5%)	771 (1.5%)	1,004 (1.7%)	1,045 (1.6%)	1,350 (1.9%)	1,491 (2.1%)	8.6%
	수익총계	47,952 (100.0%)	48,740 (100.0%)	52,796 (100.0%)	60,395 (100.0%)	65,311 (100.0%)	72,763 (100.0%)	71,763 (100.0%)	7.0%

※ 사립대학 산학협력단회계 운영계산서 기준, 원격대학 제외, 기능대학 제외

- 해외 우수 대학들의 사례를 살펴보면, 대학 내부적인 자체 수입원의 발굴로 지속가능한 재정 확보에 성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산학협력단과 관계가 깊음
- 예를 들어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, 창업지원 프로그램(StarX)을 통한 기술 라이선스 수익(OTL)으로 대학 재정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였음
- 산학협력단의 역할은 이제 단순 연구를 넘어 인재 양성, 창업 보육 등 기능이 확장되었으며, 연구 수익과 교육운영수익 등이 꾸준히 증가하여 학교의 재정에서 큰 수익 창출원으로 발전하고 있음
- 산학협력단 재정규모의 연평균 상승률은 7.0%이며, 2024회계연도 기준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익총계 대비 산학협력단 수익총계 비율은 31.0%로 2018회계연도와 비교하여 8.4%p 증가함

대학 수익 대비 산학협력단 수익 비율

(단위: 억 원, %)

구분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
산학협력단 수익총계(A)	47,952	48,740	52,796	60,395	65,311	72,763	71,763
사립대학 수익총계(B)	212,183	213,607	206,931	208,698	214,008	224,161	231,864
사립대학 수익 대비 산학협력단 수익(A/B)	22.6%	22.8%	25.5%	28.9%	30.5%	32.5%	31.0%

▶ 산학협력단의 교비회계 지원 현황

→ 산학협력단은 대학으로 수익을 전출하여 대학 재정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

- 2024회계연도 산학협력단 운영계산서를 대학별로 살펴보면, 전반적으로 산학협력단의 재정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학교회계전출금의 규모도 크며 산학협력단이 대학의 재정적 지원책 기능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

→ 하지만, 이러한 점과는 별개로 전체 사립대학 산학협력단의 2018~2024회계연도 운영계산서를 살펴보면, 산학협력단의 운영수익총계가 증가함에도 학교회계전출금비율(학교회계전출금/운영수익합계)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

※ 운영수익합계 + 당기운영차손익 = 운영수익총계



→ 산학협력단회계에서 학교회계전출금의 연평균 상승률은 △3.3%로, 수익총계의 연평균 상승률이 7.0%인 점과 대비하여 차이가 큰 편이며, 학교회계전출금 외 모든 지출 항목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

- 이를 통해 산학협력단은 학교회계로의 재정적 순환에 다소 소극적임을 알 수 있음

→ 산학협력단의 수익이 늘었음에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에 소극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의 지출 구조를 살펴보면, 산학협력단은 발생한 수익으로 지원금사업비, 간접비사업비, 일반관리비에 대한 지출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

- 해당 항목들은 산학협력단의 연구의 질을 제고하고 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지출로 파악되나, 이러한 필수적인 지출을 제외한 당기운영차손익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음
- 당기운영차손익의 연평균 상승률은 14.2%로, 수익총계 연평균 상승률(7.0%)을 크게 상회하며 학교회계전출금 연평균 상승률과는 17.5%p의 차이가 남
- 당기운영차손익의 증가세로 보아 산학협력단이 학교회계전출금을 줄이지 않고도 연구비, 인건비 등 필요한 지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음

산학협력단 운영지출 현황(2018~2024회계)

(단위: 억 원, %)

구분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 상승률	
전국	산학협력비	8,811 (18.4%)	9,163 (18.8%)	9,367 (17.7%)	10,129 (16.8%)	11,148 (17.1%)	11,528 (15.8%)	11,288 (15.7%)	4.2%
	지원금사업비	29,214 (60.9%)	29,732 (61.0%)	31,563 (59.8%)	36,615 (60.6%)	40,064 (61.3%)	45,753 (62.9%)	45,204 (63.0%)	7.5%
	간접비사업비	3,289 (6.9%)	3,511 (7.2%)	3,666 (6.9%)	4,089 (6.8%)	4,861 (7.4%)	5,257 (7.2%)	5,446 (7.6%)	8.8%
	일반관리비	2,824 (5.9%)	2,904 (6.0%)	3,133 (5.9%)	3,658 (6.1%)	4,152 (6.4%)	4,691 (6.4%)	5,205 (7.3%)	10.7%
	운영외비용	553 (1.2%)	626 (1.3%)	545 (1.0%)	721 (1.2%)	715 (1.1%)	742 (1.0%)	651 (0.9%)	2.7%
	학교회계 전출금	2,335 (4.9%)	1,884 (3.9%)	1,840 (3.5%)	1,893 (3.1%)	2,043 (3.1%)	1,921 (2.6%)	1,912 (2.7%)	△3.3%
	당기운영차손익	925 (1.9%)	920 (1.9%)	2,682 (5.1%)	3,288 (5.4%)	2,327 (3.6%)	2,871 (3.9%)	2,057 (2.9%)	14.2%
	운영비용 총계	47,952 (100.0%)	48,740 (100.0%)	52,796 (100.0%)	60,395 (100.0%)	65,311 (100.0%)	72,763 (100.0%)	71,763 (100.0%)	7.0%

※ 산학협력단회계 학교회계전출금과 교비회계 산학협력단전입금은 원칙적으로 금액이 동일하나 회계상 오기입 등의 사유로 일부 다르게 기재됨

◆ 사립대학과 산학협력단의 재정적 선순환 구축

→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산학협력단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이러한 성장이 대학의 재정 건정성 제고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

→ 사립대학의 자체 수입 창출 능력이 하락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산학협력단은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니라 대학 재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수익 창출원으로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

- 수익 창출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교회계전출금을 확대할 수 있으며, 앞서 산학협력단의 운영계산서 자료를 통해 학교회계전출금을 확대할 여력이 있음을 확인하였음

- 또한, 대학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성장을 위해 관련 규제(산학협력단의 현물출자 비율 등)를 완화한다면 산학협력단의 운영이익과 학교회계전출금을 늘리는 방안이 될 수 있음
- 2024회계연도 기준 학교회계전출금비율은 2.7%이며 이 비율을 5.0% 수준으로 확대한다면 사립 대학은 교비회계 당기운영차손의 전액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을 추가로 확보하게 됨

학교회계전출금비율 확대 시 금액

(단위: 억 원)

구분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
학교회계전출금(A)	2,335	1,884	1,840	1,893	2,043	1,921	1,912
학교회계전출금(B) (학교회계전출금비율 조정(5.0%) 시)	2,351	2,391	2,506	2,855	3,149	3,495	3,485
차액(B-A)	16	507	666	962	1,106	1,574	1,573
대학 운영차손익	△2,360	△1,025	△2,278	△2,843	△3,169	△409	△681

- 산학협력단이 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면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대학과의 재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음
 - 대학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전입금이 늘어나면 그 재원은 대학이 더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데 쓰일 수 있음
 - 이는 대학의 연구력 향상으로 이어지며, 이것은 다시 산학협력단의 사업 수주 능력을 제고하고 재정규모를 더욱 키우는 동력이 됨
- 산학협력단은 대학으로의 전출을 단순한 지원이 아닌 재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재정적인 일체화를 도모하고 대학의 자생력을 키움과 동시에 대학+산학협력단의 기술 경쟁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

